

보도일시	2025.5.27.(화) 즉시 배포
담당처	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(단장 : 안규백)
담당자	박영화 팀장(010-4652-0520) / 김윤진 팀장(010-5672-8877) / 나호선 팀원(010-9073-1328)

"K-FOOD 중심 한식, 이재명 후보와 '한국의 맛' 자킨다"

한식외식산업 종사자 300인,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

- 한식외식산업특보단, “정책역량 입증한 이 후보, 한식산업 도약 실현할 책임자”
- 10월 10일 한식의날 제정 등 한식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도 전달
- 소병훈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, “한식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”

□ 한식 조리사, 한식명인, 한식음식점 대표 등 전국 각지의 한식외식산업 종사자 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. 지지선언은 26일,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.

□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한식외식산업특보단 주관으로 진행됐으며, 지지선언을 넘어 한식외식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산업 종사자들의 실천적 다짐차원에서 이뤄졌다.

□ 한식외식산업특보단 문웅선 단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“한식은 5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우리 고유의 식문화로, K-콘텐츠 열풍과 함께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”며 “경기도지사 시절, 한식 외식업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적 역량을 이미 입증한 이재명 후보가 한식산업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”고 지지배경을 밝혔다.

□ 지지선언 이후 문 단장은 한식의 날 제정과 한식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민주당 소병훈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(국회의원, 경기 광주갑)에게 전달했다. 특히 한식업계의 오랜 염원인 10월 10일 한식의 날 제정은 ‘열 손가락으로 한국의 맛을 낸다’는 의미를 담고 있다.

□ 소병훈 수석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한식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, 우리 고유의 전통과 정신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한류의 중심”이라며 “식품과 농어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한식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안해 주신 정책들을 충실히 살펴보겠다”고 화답했다.

□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K-FOOD 한식이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중심에서 문화와 경제,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. <끝>

※ 별첨 : 행사사진

